

#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지역사회 손 잡았다

## 순천시, 유관기관과 협력...위기청소년 발굴·지원 맞춤형 특별지원·상담·교육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

순천시가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 상황·문제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통합형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나서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위기청소년 14명을 선정해 총 1785만원의 맞춤형 특별지원을 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위기청소년 중 소득

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이 중 9명에게는 '생활지원비'를, 5명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지원비'를 지급해 삶을 지탱하고 안정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내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3명을 포함했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각급 기관별로 분산 추진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와 사각지대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시를 필두로 법무부,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의료원, 고용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 민간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했다.

또 학업 중단, 가출, 자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유관기관들이 조기 발굴에 적극 협력해 보호자와 함께 전문 상담을 받은

후 각 기관들이 가진 보호·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자원을 상호 연계·지원하는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도박이나 신종 사이버 범죄, 은둔형 청소년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심리·정서적 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순천의 청소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시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연한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식품시험검사기관 재지정

## 2030년 5월까지 4년간 식품 시험·검사 업무 수행

(재)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센터장 윤영승)는 최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0년 5월까지 4년간 식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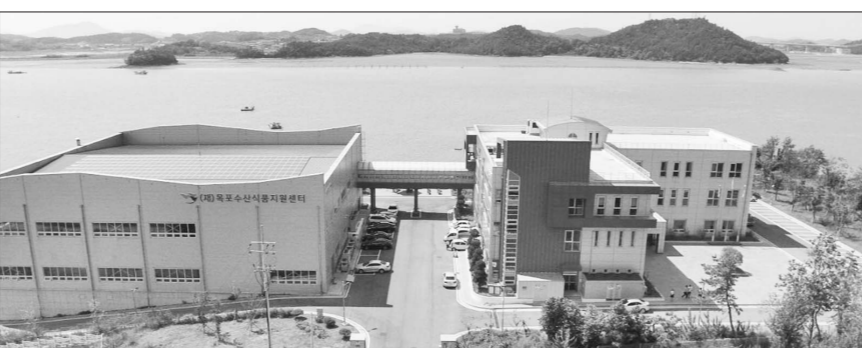
식품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식품과 가공품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는 2020년 최초 지정 이후 지역 식품·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중금속, 미생물,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

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마른김 제조업체의 HACCP 운영 지원과 김 품질회 정량분석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 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운영체계, 시설·장비 관리, 시험 신뢰성,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지정기간이 확대돼 센터의 기술 역량과 품질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센터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과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전경. 사진제공=목포시청

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물 식품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승 센터장은 "이번 재지정은 센터의 분석 역량과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

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물 식품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여수, 석유화학산업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 긴급생계안정비·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실직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남도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안정비(부양가족수당)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여수지역 석유화학(연관) 기업에서 지난해 8월 28일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이다.

신청용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 이력이 있고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일일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석유화학산업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구직활동수당)과 철

강산업 실직자 생활안정 패키지 지원사업(긴급생계안정비), 석유화학·철강산업 일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건강복지비)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한 다.

현장 접수는 오는 15일~30일(주말 제외) 운영되며, 첫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고려자, 실직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돼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영암 드림스타트 '백제 탐방' 국보 전시 연계한 역사 교육

영암군 드림스타트가 지역 아동들을 위해 과거 백제로 떠나는 특별한 역사 문화 탐방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일 영암도기박물관에서 '드림이들의 백제 시간여행'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과정은 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국보 순회전과 연계해, 아이들이 고향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몸소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찾은 아동들은 전시된 국보들을 세밀하게 감상하며 유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가슴에 담았다.

이와 함께 준비된 학습지를 채워나가는 탐구 활동을 통해 전시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도적으로 알아갔다. 스텝프를 찍으며 전시장 곳곳을 누비는 투어와 다채로운 체험 활동도 백제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재미를 더했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역사관과 문화적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향후에도 지역 사회가 보유한 풍부한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포레스트수목원)에서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달여간 2026 평광해남 수국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관광객이 수목원에 핀 수국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청

# "해남 '수국수국 동화나라' 초대합니다"

## 군, 12일부터 포레스트수목원서 수국축제 개최

해남군 봉동숲에 '수국수국' 동화나라가 펼쳐진다.

9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달여간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포레스트수목원)에서 '2026 평광해남 수국축제'가 열린다.

각양각색의 수국 400여품종, 8000여 그루가 식재된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수국이 관람객들의 탄성

을 자아낸다.

현재는 조생종 수국이 알록달록 숲길을 물들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국정원 전체가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원에는 수국 기차길을 비롯해 곳곳에 위치한 수국 포토존이 마련돼 관람객들 사이에서 '인생샷'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수국은 탐스러운

커다란 꽃송이와 다채롭고 신비로운 색깔로 초여름 청량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재미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꽃의 색깔이 무척 다채롭다.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4est수목원에는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심어졌다.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됐으며,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됐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영광, '쉽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

## 30일 당첨자 70명 선정·발표...특산품 제공

영광군은 관광객의 여행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영광 쉽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광을 방문한 관광객이 작성한 관광후기를 SNS를 통해 공유, 주요 관광자원의 매력을 확산하고 관광객 중심의 자발적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영광군 공식 SNS 채널 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팔로우, 유튜브 구독, 블로그 이웃추가 중 1개 이상을 완료한 뒤, 영광군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추가하고 영광 관광후기를 작성한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폼으로 인증하면 된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군은 참여자 중 당첨자 70명을 선정해 오는 30일 영광 쉽표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영광특산품이 발송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영광 쉽표여행'과 연계추진해 관광객의 실제 방문 경험을 온라인 후기 콘텐츠로 확산하고,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 쉽표여행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영광의 관광지와 먹거리, 특산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례, 청년들 공공행정·경제활동 기회 제공

## 청년인턴 10명 모집

구례군이 청년들의 공공행정 경험 확대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6년 청년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청년 농업인의 농한기 등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를 활용해 행정업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이전부터 주만등록상 주소를 구례군에 두고 있는 19세부터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공개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추첨 순위에 따라 참가자가 희망 근무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반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 선발된 행정인턴들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군청 각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배치된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행정업무 보조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구례=이민구 기자 city@gjdream.com